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익산시 6개 영역별·20개 전략사업 추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인정... 인구유입 효과 기대

익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 확대를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 증가와 인구유입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54번째, 도내에서 4번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다.



아동친화도시란 1989년 11월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한다.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46가지 세부 항목을 평가해 결정하며, 4년간 그 자격이 유지된다.

시는 인증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며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서류심사 기준점수와 지난 4일 진행된 정현을 시장과 실무진 대면 심의 등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과하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아동이 주체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이 행복하고 마음껏 뛰놀수 있는 익산을 비전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해 아동친화 6대 영역별 20개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맞춤형(아이사랑) 콜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을 새롭게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과 교육환경, 놀이와 여가 생활까지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사업을 추진한다. /김재훈 기자

# 시민독서 온라인 역사 특강

### 군산시립도서관 신병주 교수와 함께 56개 공간으로 읽는 조선사

군산시립도서관이 재미와 감동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조선시대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시립도서관은 오는 25일 오후 7시에 군산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병주 건국대 교수를 초청해 56개 공간으로 읽는 조선사라는 주제로 역사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독서 아카데미 특강은 조선시대 도성, 왕릉 등 다양한 유적지에 얽힌 역사 사건들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신병주 교수의 입담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을 마련했다.

신병주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울대 규장각 학예 연구사를 거쳐 현재 건국대 학과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 전문가로서 KBS <역사저널 그날>,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했으며 KBS라디오 <신병주의 역사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왕으로 산다는 것', '왕비로 산다는 것', '조광조 평전', '조선 산책' 등이 있으며 활발한 저술과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힘쓰고 있다.



이번 강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현장 강연에 참여(50명)할 수 있으며,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익한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 강연 참여자 접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선착순 모집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서관총계(☎454-563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나선다

###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불법행위·공공수역 오염 단속

군산시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절기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번 감시활동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

비밀배출구 설치,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가축분뇨·폐기물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강우 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등의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차상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당 친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정책과(454-3400), 당직실(454-422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단속을 통해 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시,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자재비 급등 등 이종고를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합영·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2

곳의 임대 농기계 총 578대 가중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된다.

이번 혜택으로 앞으로 6개월간 1천9백여 농가에 5천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영농경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농가에게 약소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싶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농촌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익산시, 코로나19 '안심 경로당' 지정 운영

익산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발맞춰 접종률 90% 이상인 경로당을 '안전 경로당'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21일부터 지역 내 77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주 이상 지난 어르신들만 이용이 가능하며, 추후 코로나 안심패지를 착용한 어르신들도 경로당을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백신 2차 접종시까지의 경로당 내 식사행위가 금지되고 이용 시간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제한된다. 오는 10월 중에는 식사 등이 가능한 수 있도록 정상 운영될 방침이다.

또한 백신 접종률 90% 이상인 경로당의 경우 '안전 경로당'으로 지정돼 여가프로그램 사업 등이 우선 지원되며, 안전 경로당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작·배부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경로당 감염 책임자와 방역관리자 지정관리로 자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운영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경로당 운영 재개로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과 활력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철저한 생활 방역체계 구축으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문화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실시

군산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등 업무대행에 대한 성실 이행 여부를 확인해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실시공 여부, 사용승인 전 임주 여부 및 불법증·개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

/군산=고병만 기자

### 익산청년센터 '청춘', 개관 2주년 이벤트 개최

익산청년센터 '청춘'이 개관 2주년을 맞아 익산청년센터 활성화와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청춘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익산청년센터 청춘 홈페이지, 청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청춘 2형식 짓기 ▲청춘배너 촬영 인증 ▲개관 2주년 축하 메시지 남기기 등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축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심사를 통해 청년참여포인트 최저 3만에서 최대 10만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청년참여포인트는 다이로움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 청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시 홈페이지 익산소식란을 확인하면 된다.

익산청년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19일 개관 이후 청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왔다. /김재훈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